



## “불국정토를 우리의 힘으로”

### 전국사원 부처님 오신날 연등 법회 봉행



▲ 불교 총지중 서울·경인 교구 소속 사원의 스승과 교도들이 종로거리를 행진하였다.

#### 정각사·총지사 등, 부처님오신날을 교도와 함께 축제로 맞아



▲ 부산 정각사 교도들이 본존에 육법공양을 올리고 교도들에게 합장을 하고 있다.

총기 40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봉축 연등법회가 5월 10일 전국의 각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했다.

총지사 서원당에서 열린 법회는 선도원 주교가 효강 종령 이하의 봉축법어와 지성 총리원장의 봉축사를 대독하였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에서 “중생들의 탐진치는 날로 치성하고 사회는 빈부격차로 황폐해져가고 있다.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욕심 가는대로 자신을 방치한 결과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나의 마음을 잘 들여다 보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많은 이웃을 돌아보자”고 설했다. 지성 총리원장의 봉축사는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더욱 자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체대비의 정신을 더욱 발현해나갈 것을 일깨워 주시고 있다.”면서 “나와 너 라는 분별심과 이기심, 아집과 편견, 원망심과 증오심으로 가득찬 나를 버리고, 크고 동글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회전 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서원당에는 화령 정사, 법경 정사, 룡경 정사, 법수연 전수, 덕현 전수등 스승과 깊은 속 총지사 신정회 회장등 교도 간부와 교도 가족·친지들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2부 시간에는 보정연구원이 남과 비교하는 삶 보다는 주체적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자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다. 이번 연

등행렬에 참가했던 총지 연회단 교도들은 본존에 ‘옴마니반메훎’ 연등을 올렸다.

자성학교의 어린이들이 실로 풍류주와 피아노연주가 있었으며, 한 어린이는 발리춤을 선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총지사 중창단은 응성공양을 하였다.

한편, 부산 정각사(주교 대원 정사)도 교도와 함께 봉축 연등 법회를 열었다.

교도들은 육법공양을 본존에 올렸으며, 만다라 합창단이 노래로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더해 주었다. 서원당에는 대원 정사, 정인화 전수, 정원 전수, 부산·경남 신인록 신정회 지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종한 기자

#### 한국불교대표, 일본·쓰나미 희생자 위령제 총지중 지성 총리원장 참석



▲ 위령제에 앞서 지성 총리원장등 한국 불교 대표단이 평간사를 방문하여 후지다 류조 스님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이사장 정산스님)는 5월 23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카마쿠라(鎌倉)시 코우묘우지(光明寺)에서 ‘동일본대지진 희생자 위령법요식’을 봉행했다.

위령제는 한국불교대표단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혜정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총지중 총리원장 지성 정사,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스님, 원효종 총무원장 함운 스님, 대각종 총무원장 만창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 등 한국측 40여 명과 일

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미야바시 쇼겐(宮林昭彦) 스님과 부회장 후지다 류조(藤田隆乘) 스님 등 일본 불교계 인사 150여명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정산 스님이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미야바시 쇼겐 스님에게 지진피해 복구 성금 1000만엔(한화 1억 3000만원) 전달에 이어 일본불교식 천도의식, 한국불교식 천도의식 순으로 봉

행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스님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이번 대지진으로 희생된 모든 사망자와 실종자들이 아미타불의 가피를 입어 모두 반야용선에 올라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상품상생하길 기원한다”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어 천태종 범음법패보존회 스님 7명이 영산재 의식을 맡았다.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 후지다 류조 스님은 “한국불교계 스님들이 동일본대지진 희생자에 대해 정성어린 위령법요를 봉행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구원금을 보내준 것에 거듭 감사의 예를 드린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한국불교대표단은 당초 후쿠시마 지역에서 피해복구 및 위령제, 성금 전달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본정부의 불허로 가마쿠라 지역을 방문했다.

한편, 한국불교교류대표단은 방문 첫날인 22일 일본 진언종 본산인 가마쿠라 평간사를 방문해 주지 후지다 류조 스님과 함께 호마의식을 올렸다.

#### 종조법설

##### 상일주재(常一主宰)

자아를 부정하고 오온의 화합을 주장하여 일체(一切)를 동일법상에서 보는 것이다.

아(我)에 집착하면 모든 법의 평등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떠나서 평등(平等)하게 보는 것이다.

#### 새로운 종풍운동(宗風運動)

-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 실천해 나갑니다.
-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니다.
-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 총지중, 서울 및 부산 연등축제 참가

총지중 서울·경인 승직자와 교도들이 종로 연등축제에 참가했으며, 부산교도들은 부산연등 축제에 참석했다.

5월 7일에 열린 서울 연등축제는 동국대운동장에 모여 타 종단 불자들이 함께 울동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울·경인교구 교도들은 동국

대 운동장을 출발하여 동대문·종로를 거쳐 조계사까지 행진하였다. 연등행렬은 승직자와 교도들이 총지중 깃발과 ‘옴마니반메훎 연등’을 들었다.

또 진언이 새겨져 있는 ‘번’을 학생들이 들어 거리의 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 한편, 부산에서는 구덕운동장에 모인 승직자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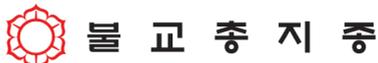
교도들은 태장계 만다라의 종대 팔엽원이 그려진 팔모등을 들었다. 장엄등은 준제결인상과 사천왕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동해중 학생들이 북을 리듬있고 박력있게 쳐서 시민의 눈길을 끌었다.

행진은 중앙동로타리를 거쳐 있으며, 광복동 용두산공원에서 회향하였다.

## 하반기 49일 불공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닌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허물을 찾아 참회하고, 조상으로부터 쌓아 온 업장을 소멸하는 지극한 불공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여 해탈을 이루시고, 항상 마음자리를 살피 청정한 부처님이 되도록 수행정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반기 49일 불공정진으로 모든 마장을 예방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 ◆ 일 시 : 총기 40년 5월 28일 ~ 7월 15일
- ◆ 대 상 : 총지중 교도 및 모든 불자
- ◆ 장 소 : 총지중 전 사원



# 자연과 함께한 승직자와 교도

## 서울·경인 교구 청계산 등산



▲ 청계산 이수봉에 도착한 스승과 교도들이 시원한 산바람을 맞으며 환한 모습으로 있다.

스승과 교도 50여명이 하나 된 모습으로 서로를 북돋으며 봄의 산행을 만끽했다. 서울·경인 교구 주최로 5월 19일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청계산을 다녀왔다.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였으나 날씨가 개였으며, 등산객도 많지 않아 등산하기

좋은 환경이었다. 지성 통리원장, 서울·경인 교구장 시정 정사와 서울·경인 교구 소속 스승들이 참석했다. 김은숙 신정회장, 보덕재 수석부회장, 이인성, 이연수 총무와 박정희 마니함창 단장 등 각 사원의 회장과 교도들이 산에 올랐다. 또한 실지사

에서 불공수행하는 92세의 지성 정교도를 비롯하여 연로하신 교도들이 참석하여 노약자와 건강함을 보여주었다. 스승과 교도들

은 모처럼 산에 올라 힘은 들었으나 산새소리와 햇볕의 따사로움 등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성 통리원장은 교도와 함께 산에 오르면서 "자연의 상큼한 공기를 마시고 오늘 하루 즐겁게 즐기자"고 말했다.

김은숙 지회장은 "나이가 있어 남들만큼 많이 오르지 못하지만 산을 접하니 기분이 상쾌하다."고 말했다. 이날 등산은 옛골을 출발하여 이수봉(545m)에 이르는 3.5Km를 쉬엄쉬엄 오르며 산길을 걸었다.

이번 산행을 계기로 서울·경인 교구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기로 뜻을 같이 했다. 김은숙 지회장은 참석한 스승과 교도에게 수건을 보시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산행 후 각 사원의 교도들은 인근 관광을 계속했다. 총지사는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했으며, 밀인사는 양수리 수증사를 다녀왔다.

# "스승님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교도들, '스승의 날' 자리 만들어



서울·경인 교구 신정회 지회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5월 10일 경기도 미사리의 음식점에서 스승님께 고마움을 전했다. 이날 효강 총령 예하와 지성 통리원장, 인선 총무 부장, 시정 재정부장과 서울·경인 교구 스승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교구 신정회 김은숙 회장은 축하자리에서 "우리 교도들이 오늘에 있기까지 부처님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존경함을 표현했다. 지성 통리원장은 "더 나은 스승이 되도록 정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후 양수리에 위치한 두물머리(남한강물과 북한강물이 만나는 곳)를 찾았다.

▲ 스승의 날에 김은숙 지회장은 효강 총령 예하에게 케네디선 꽃비구니를 올렸다.

# 총지중 연희단 지리산 관불행사

## 바래봉, 남원 광한루 탐방



▲ 남원 광한루에서 연희단은 가벼운 산책을 하였다.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에 참가한 총지중 연희단이 지리산과 남원 관불 행사를 가졌다. 통리원은 지난 몇 달에 걸친 연희단의 연습과 연등행렬 노고를 치하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총지화 기로스승, 선도원 전수, 정심사 진일심 전수, 법경 정사와 서울·경인교구 소속의 연희단 교도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총지화 기로스승은 "연희단이 열심히 하는 모습과 불공모습이 같다"면서 "모든 일의 적극성은 수행으로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김은숙 연희단장은 "나이가 있고 시간도 부족한데 모두 열심히 잘 견디면서 했다"고 위로의 말을 했다. 이어 안무를 맡았던 박묘정 교도, 연희단 단장을 맡은 박정희 교도, 살림을 맡은 손경옥 총무 등 연희 단원 모두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행사는 지리산둘레길에 위치한 여인들이 쉬는 곳이라는 '여원정'에서 직접 준비한 식사로

공양을 하였다. 이어 철쭉꽃으로 이름난 바래봉(1167m)등산을 하였다. 연희단원들의 일부교도는 정상까지 올라 철쭉꽃의 아름다움을 즐겼다. 또한 근처의 운지사 에 들러 부처님께 예를 올렸다. 남원시내의 광한루에 도착하여 성춘향과 이몽룡의 정취를 느꼈으며, 춘향기념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알림방** ▶5월 28일 ~ 7월 15일 하반기 49일 불공  
▶5월 30일 ~ 6월 5일 월초 불공

# 정각사교도, 담양 담록원 다녀와



▲ 정각사교도는 전북 고창 선운사 관불을 다녀왔다. 선운사에서 동백나무꽃을 보았으며, 담양 대나무 숲인 담록원을 방문하여 대나무차를 마시며 몸의 상쾌함을 더했다.

### 죽비소리

### 여래십호 (如來十號)

부처님께서 선남자에게 이르셨다. "부처님께서 출현하셨으니 그 명호를 여래·응공(應供)·정변지·명행족(明行足)·선서(善逝)·세간해(世間解)·무상사(無上士)·조어장부(調御丈夫)·천인사(天人師)·불(佛)·세존(世尊)이라 했다."

- 대승장엄보왕경 -

# 지성 통리원장, 동해중 이사장으로 선출

## 제136회 동해중 이사회



지성 통리원장이 총지중 종립학교인 동해중학교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5월 17일 학교 법인실에서 열린 제136회 이사회는 5월 10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의장 이사장 후임에 현 통리원장인 지성 정사를 선출하였다. 이

사회는 지성 정사, 대원 정사, 인선 정사, 선도원 전수, 강경중, 김두남 (이상 이사)와 박정선 감사가 참석하였다. 한편 지난 이사회에서 종단은 지성 통리원장을 이사장으로 추천 하였다.

#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개천사 무명씨 5/20 10,000	기 로 사홍화 5/23 10,000	밀인사 이혜성 5/18 20,000	수인사 김봉기 4/27 10,000	정각사 김문수 5/12 10,000
개천사 이희권 4/27 10,000	기 로 상지화 5/23 10,000	밀인사 이희원 5/9 10,000	수인사 장영택 5/3 50,000	정각사 박동휘 4/28 10,000
개천사 이희권 5/24 10,000	기 로 수증원 5/23 10,000	밀인사 정정희 5/2 5,000	승천사 원 봉 5/20 10,000	정각사 박동휘 5/19 10,000
개천사 전경택 5/23 20,000	기 로 총지화 5/23 10,000	밀행사 무명씨 4/28 20,000	승천사 지선행 5/20 10,000	총지사 이인성 5/12 30,000
건화사 이혜련 5/20 30,000	기업은행 5/11 100,000	백월사 이갑진 5/25 10,000	신 바 5/19 100,000	해정사 오혜민 4/27 20,000
관성사 박현숙 4/26 10,000	단음사 법연지 4/27 10,000	백월사 진 평 5/25 5,000	실보사 송희화 5/3 20,000	흥국사 지 정 5/20 20,000
관성사 황성녀 4/29 10,000	단음사 법연지 5/17 10,000	법천사 시 정 5/23 10,000	실보사 이순옥 4/28 5,000	무명씨 5/23 5,000
관음사 신막심 5/4 10,000	단음사 천 공 5/6 4,000	법천사 원만원 5/23 10,000	실보사 정법계 5/20 10,000	박말조 5/23 5,000
관수원 권성수 5/25 10,000	만보사 공현진 5/25 30,000	벽룡사 양정현 4/27 10,000	실보사 조순애 5/11 100,000	박정대 4/27 50,000
기 로 대 관 5/23 10,000	만보사 공희건 5/25 20,000	벽룡사 양지현 4/27 10,000	실보사 해 정 5/20 10,000	신 바 4/27 100,000
기 로 대자행 5/23 10,000	만보사 정덕순 4/27 10,000	벽룡사 이종호 4/26 40,000	실지사 송우섭 5/20 5,000	안효정 4/27 20,000
기 로 밀공정 5/23 10,000	밀인사 묘심해 5/21 10,000	삼일사 원 송 5/2 10,000	실지사 정경자 4/27 5,000	이혜원 5/2 5,000
기 로 범수원 5/23 10,000	밀인사 원 당 5/21 10,000	삼일사 인법계 5/2 10,000	실지사 정우석 5/6 10,000	임동수 4/27 10,000
기 로 범장화 5/23 10,000	밀인사 이연수 4/26 10,000	선립사 삼지장 5/18 10,000	운천사 반야화 5/20 20,000	최순전 4/27 20,000
기 로 범지원 5/23 10,000	밀인사 이연수 5/22 10,000	선립사 정복지 5/18 10,000	자석사 CCH 5/16 10,000	
기 로 불멸심 5/23 10,000	밀인사 이재갑 5/12 10,000	성화사 원배려 5/18 35,000	정각사 구정희 5/18 20,000	

###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자료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의은행: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 불기2555년 부처님오신날 특집기(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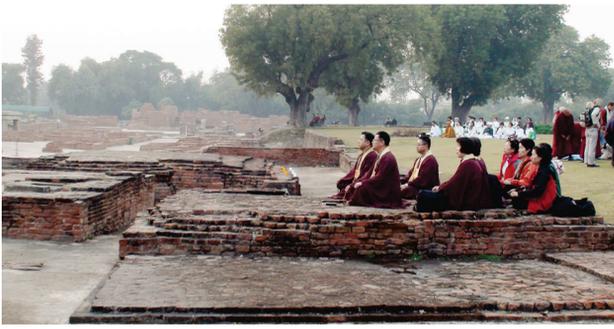
# '불교 4대 성지' 를 가다!!! - 「초전법륜지」와 「열반지」

## 사성제 팔정도를 설하다 「초전법륜지(初傳法輪地)」

### 「바라나시의 사르나트(녹야원)」

깨달음을 얻고 49일 후에 부처님이 옛날에 함께 수행했던 다섯 비구(오비구 五比丘)를 찾아가 처음으로 팔정도, 사성제, 중도의 법을 설한 곳이 사르나트, 녹야원이다. 이 사르나트는 바라나시에 있다. 바라나시는 경제와 교역의 중심도시이자 인도수행자들의 성지로 유명한 관광지인 곳이기도 하다. 이 사르나트가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하신 곳으로도 유명하지만 최초의 승가를 이룬 곳으로 중요한 성지이기도 하다. 또 야외에서 법을 전하던 야단법석의 시초이자 사원이 생기기 이전 형태의 고전적인 탑모양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붓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옛날 스승이었던 알라라 칼라마와 우다가 라마푸타를 찾았지만 이미 돌아가신 것을 알고 예전에 함께 수행했던 다섯 명의 수행자들에게 법을 설하기 위하여 길을 떠나게 된다. 붓다가야에서 약 300Km의 거리를 걸어 바라나시에 도착하여 바라나시 성안



▲ 초전법륜지 사르나트 오비구에게 처음 법을 설한 곳인 바라나시의 사르나트, 녹야원이다. 초전법륜지에서 총지종의 승지와 교도들이 참배법회를 올리고 있다.

가나트(saranganatha)가 줄여 '사르나트'라 불리게 되었다.

성도(成道)를 하신 후 바라나시에 이르신 부처님은 현재의 사르나트 박물관 남쪽에 위치한 차우칸디 스투파 자리에서 다섯 명의 옛 도반을 만나게 된다.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려고 왔을때 그들은 '그전에 고타마는 타락했던 수행자다. 가까이 오면 절대 이는 제하지 말자'고 약속하였으나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의 자비하신 모습과 그 광채에 오히려 다섯 비구들은 감화되어 먼저 머리를 숙이고 예의를 갖추었다고 한다. 다섯 비구들을 처음 만난 곳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탑이 바로 '차우칸디 스투파'이다.

가서 바로 설하지 않고 1Km 정도 떨어진 녹야원의 동산에 가서 법을 설하셨다고 한다. 또한 사르나트에 도착한 즉시 바로 법을 설하신 것이 아니고 3일 동안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가 3일이 지나서야 법을 설하셨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 이르러 현재의 '디랙 스투파' 자리에 앉아서 다섯 비구에게 최초의 법을 설하셨다. 디랙 스투파 자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1000분의 부처님께서 해탈을 이루고 법을 전하셨다고 한다.

사성제, 팔정도와 중도의 가르침을 전해들은 오비구(五比丘)는 모두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으며 이를 본 부처님은 기쁨에 넘쳐 "여기에 여섯 아라한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오비구에게 법을 설하고 난후 부처님께서 사르나트에 머무시는 동안 바라나시에 사는 대지주의 아들 야사와 그의 친구 50명을 제자로 받아들여서 야사의 부모 역시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교신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부처님, 초전법륜, 부처님과 법을 받드는 승려들을 포함하여 불법승(佛法僧)의 삼보가 갖추어졌고 여기에 남자 신도인 우바새와 여자신도인 우바

이가 생기면서 승가의 조직을 갖추게 된 장소로서 의의가 아주 큰 곳이기도 하다.

부처님의 법을 모든 제자들이 바르게 이해하자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법을 듣고 해탈을 얻어 속세의 많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중생들은 아직도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떠나거라. 모든 중생의 편안함을 위해서..."라는 유명한 전법의 선언을 하시게 된다. 제자들을 떠나보내신 부처님은 이후 깨달음을 이루어셨던 붓다가야의 네란자라 강가에 살고 있는 가섭 3형제들을 제도시키기 위하여 사르나트를 떠나 다시 붓다가야로 향하셨다.

## 영원한 해탈, 열반에 드시다 「열반지(涅槃地)」 「쿠시나가라」

붓다가야로 돌아온 부처님께서는 가섭 3형제를 교화하고 나서 중인도의 전지역을 다니시며 전법을 하셨다. 특히 마가다국의 라즈기르(왕사성), 코살라국의 쉬라바스투(사위성), 베살리, 바라나시 등 교역과 상업, 교



▲ 열반당과 아쇼카 스투파 :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곳이 쿠시나가라이다. 여기에 열반당을 세워 부처님의 열반상을 모시고 있고, 열반하신 자리에 아쇼카왕이 스투파를 세웠다. 앞이 열반당이고 뒤가 아쇼카 스투파이다.

통, 문화의 중심지를 주로 다니시며 법을 전하셨다. 깨달음을 이루신 뒤 45년을 오로지 중생들을 위하여 전법 활동을 하셨던 부처님께서는 80세의 일기로 열반에 드시니 그곳이 바로 인도북부 지방의 쿠시나가라이다.

「대반열반경」에 의하면, 라즈기르를 떠난 부처님은 나란다를 거쳐 파트나와 갠지스강을 건너 베살리의 암바팔리 동산과 벨루바 마을을 차례로 들리신후 벨루바 마을에서 마지막 하안거를 보냈다고 한다. 그 당시 이미 부처님께서 몸이 병을 얻어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다. 걱정스러운 아난다가 부처님께 병이 어떠한지 묻자



▲ 차우칸디 스투파 :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서 붓다가야를 떠나 오비구들에게 법을 설하기 위하여 바라나시로 오셨는데, 오비구들을 처음 만난 자리가 바로 이곳이다. 이 스투파를 영불탑(迎佛塔)라고도 한다. '부처님을 맞이한 장소'를 기념하기 위하여 서기 5세기경 굤타왕조시대에 건립되었다.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아난다야, 내 몸은 이제 늙어서 마지막에 이르렀다. 내 나이 지금 80이니 마치 낡은 수레와 같이 이제는 더 이상 강건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때가 있는 것으로 세상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지 않을 수 없다. 아난다야, 너는 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자기자신을 집처럼 생각하라. 그리고 법을 불빛처럼 생각하고 법을 집으로 여겨서 법에 귀의하여야 한다"고 하셨다. 열반에 이르러 설하신 '자등명 범등명'의 가르침이다.

마지막 하안거를 마치고 부처님은 베살리의 파후푸드라카(다자탑)에서 고통스러움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등이 많이 아프구나.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좀 쉬어가고 싶구나"라고 말씀하셨다. 나무그늘에 앉아 잠시 쉬고 계시는 동안 한 약마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서서 열반에 들라고 말한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마야, 저리가라. 나는 스스로 언젠간지를 알고 있으니 지금으로부터 석달이 지나서 내가 원래 태어났던 곳인 쿠시나가라의 사라

경전에 근거한 바로는, 열반을 미리 예언하신 부처님께서는 베살리를 떠나 쿠시나가라로 향하셨다고 한다. 도중에 부처님께서는 쿠시나가라의 남서쪽 약 20Km에 위치한 파바마을에 있는 춘다의 동산에 머무셨다. 춘다는 부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돼지고기로 만든 요리를 정성껏 만들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춘다가 준비한 음식을 모두 드신후 춘다에게 나머지 음식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춘다가 이유를 묻자 음식이 상하였기에 다른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다. 이미 상한 음식임을 알고 계셨던 부처님은 내색하지 않고 정성스레 준비한 춘다의 음식을 모두 드시고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에 춘다는 부처님께 공양올린 자신의 음식으로 인하여 이미 쇠약해진 부처님의 건강을 더 나쁘게 하였다는 죄책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자 부처님께서는 "춘다가 마지막으로 공양 올린 음식은 성도 전에 수자타가 내게 공양한 유미죽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시며 부처님의 마지막 공양을 올린 춘다를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셨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공양 때문에 병은 더욱 깊어졌고 '붉은 피가 나오고 죽음에 가까운 심한 고통을 느끼셨다'고 경전은 전하고 있다. 부처님의 괴로움은 파바마을에서 쿠시나가라로 향하시는 도중에 무려 25번이나 휴식을 취하셨다고 하니 그 고통이 어떠한지를 상상할 수 있다.

마침내 쿠시나가라에 도착한 부처님은 회연강을 건너 두 개의 사라나무 사이에 침대를 준비하신 다음, 머리를 북쪽에 두고 얼굴은 서쪽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침대에 놓으신후 옆으로 조용히 누우셨다. 부처님께서 자리에 누우시자 갑자기 옆에 있던 사라나무에 꽃이 피고 그 꽃잎이 부처님께서 누워계신 곳에 겨울의 하얀 눈처럼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에서는 좋은 향이 냄새를 풍기고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여러 곳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기를 한참, 곧 저녁이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것이라는 소문을 전해들은 수바다리라는 늙은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부처님이 시어, 세상의 모든 수행자들은 서로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하며 서로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직한 수행자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하고 여쭙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수바다리야, 팔정도를 행하지 않는 자는 좋은 수행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팔정

도를 행하지 않고는 중도를 이룰 수 없으며 중도를 통해서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설한 법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그대 수바다리는 현명하여서 이 모든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수바다리는 자신도 모르게 땅바닥에 엎드려 부처님께 예경을 올렸고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었다. 이렇게 출가한 수바다리는 부처님 생전의 마지막 제자가 되었다.

쿠시나가라의 밤은 더욱 깊었다. 만물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오랜 침묵 속에서 누군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울음 속에서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쭙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 때 우리는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우리는 가르침을 원해도 받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그때가 되면 너희는 모두 네 군데의 장소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곧 부처가 태어난 곳을 생각할 것이며, 또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곳, 부처가 법을 설한 곳과 열반에 든 곳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 네 곳을 생각하므로써 부처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며, 그의 가르침을 생각해서 부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난다야, 부처가 열반에 든 것을 보고 법이 없어졌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나는 너희 비구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였다. 이제 그것이 너희 비구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내가 열반에 든 다음에도 법을 존중하기를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난 사람이 빛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이 보물을 얻은 것처럼 하여라. 법은 너희들의 스승이기 때문이며, 내가 살아 있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나를 보는 것은 법을 보는 것이고, 법을 보는 것은 또 나를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달빛만 있는 사라나무 주변의 침묵 속에서 부처님의 이 설법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 들었다. 잠시 후 모든 비구들을 불러 모은 부처님께서는 무엇이든 질문하라고 하신다. 아무런 물음도 없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신다. "비구들이여, 모든 현상은 변한다. 오직 부처란만 정진하라."

그날은 유난히도 달이 밝게 비치고 있었고, 사라나무 주위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났으며, 천지를 흔드는 울림이 일어났다. 이날이 음력 2월 15일 밤이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며 영원한 열반에 드셨다.

〈밀교연구소 법경 정사〉



▲ 사르나트의 아쇼카왕 석주 : 아쇼카왕 석주는 원래 높이 15.25미터, 지름 71.1미터의 석주가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위에는 네 마리의 사자상과 법륜상이 놓여 있었으나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위사진에서 처럼 약 2미터 정도의 기단부이다. 사자머리의 초전법륜상은 현재 사르나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사르나트의 디랙 스투파 : 부처님께서 오비구에게 처음 법을 설한 장소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아쇼카왕이 부처님 열반 250년후에 이곳에 스투파를 세웠다. 처음에는 '다라마 차크라 스투파'라 불렸는데 나중에 '디랙 스투파'로 바뀌었다. 진리를 보는 탑이라 하여 법안탑(法眼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쇼카왕때에는 작은 스투파였으나 굤타왕조에 와서 지금과 같이 증축되었다. 기단부의 지름이 28.5미터, 높이는 42미터이다.

에서 공양을 마친후 다섯 수행자가 있는 사르나트로 향하였다.

사르나트라는 이름은 사슴과 관련해서 나오게 된 것이다. 부처님의 전생이야기가 적혀있는 '자타카'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날마다 사냥을 즐기던 바라나시왕이 매일 사슴 4~5마리를 잡아가지자 사슴 왕이 찾아와 스스로 매일 한 마리씩 잡혀 줄테니 사냥을 삼가달라고 간청하였는데, 차례가 된 사슴이 새끼를 배고 있음을 알게 된 사슴왕이 자기 차례도 아닌데 대신 죽으려고 하자 이에 큰 감동을 받은 바라나시 왕은 "훌륭한 자비심이로구나. 비록 사슴이지만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 나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던 했어도 사슴보다 못해 자비심이 없구나"라고 말하며 사슴왕을 돌려보냈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이 동산에서 사슴을 잡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 이곳을 사슴동산, 즉 녹야원(鹿野園)이라 부르게 되었고, 산스크리트어로 '사슴의 왕'을 뜻하는 '사랑



▲ 마타 쿠이르 사원 : 마타 쿠이르는 '작은 왕자'라는 뜻이다. 열반당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다. 석가족의 죽은 왕자인 고타마 첫딸타를 기리기 위하여 세워진 사원이다. 사원과 불상은 서기 10~11세기의 칼리추리 왕조때에 만들어졌고 현재의 사원은 1927년에 다시 세워졌다.



▲ 열반상 : 열반당 안에 모셔진 부처님의 열반상. 서기 5세기경 히리발라라고 하는 스님이 거대한 열반상을 만들고 오래된 사원을 수리하였다.

불교의 선정 ③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선정 색계4선



화령 (종교교육원장)

색계사선 가운데의 제이선에 대해서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심(壽)과 사(伺)가 멈추고 내심이 깨끗하게 되며, 마음이 통일되고 심과 사가 없어져서, 정(定)으로부터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제이선을 구축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초선에 남아 있던 심과 사의 사유작용이 완전히 없어진다. 여기에서의 심은 대략적으로 사물을 보는 마음의 작용이며 사는 좀 더 세밀하게 살피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러한 마음의 작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관의 작용도 없어진다. 심과 사라는 표면적인 생각이 완전히 멈추게 되면 마음은 깨끗하게 되어 산만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고요하고 맑은 선정으로부터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이선에서는 희, 낙과 심일경성의 삼지(三支)가 있다고 한다. 초선과 제이선의 차이점은 이처럼 심과 사의 유무에 있다.

경전에서는 선정을 유심유사정(有壽有伺定), 무심유사정(無壽有伺定), 무심무사정(無壽無伺定)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유심유사정은 선정 가운데에서 심과 사가 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색계 초선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불완전한 선정이기는 하지만 욕계정(欲界定)도 심과 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심유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욕계정이란 감각의 탐욕을 버리지 못한 욕계의 중생들이 하는 선정으로서, 우리 범부 중생들이 일반적으로 선정을 한다고 할 때는 기껏해야 이 정도의 차원일 것이다.

그러나 욕계의 선정도 속달이 되면 더 이상의 단계로 발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심무사정은 선정 가운데에 심과 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이선으로 부터 제삼선, 제사선의 색계정(色界定)이 여기에 해당되며, 무색계정(無色界定)도 모두 무심무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무심유사정이라는 것은 심은 없지만 사는 작용하는 선정을 말한다. 현저한 사유작용은 없지만 미세한 사유작용이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사선정 가운데에는 이론적으로는 무심유사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단계의 선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인데, 무심유사정은 유심유사정인 초선 정보다는 뛰어나고 무심무사정인 제이선 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초선과 제이선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정(中間定)이라고도 한다.

제이선에 속달되면 제삼선(第三禪)으로 나아간다. 경전에서는 제삼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기쁨을 버리고, 사(捨)에 의하여 머물고, 염(念)이 있으며, 정지(正知)가 있고 몸의 즐거움을 받으며, 사와 염의 즐거움에 머문다고 모든 성현께서 이르신 제삼선을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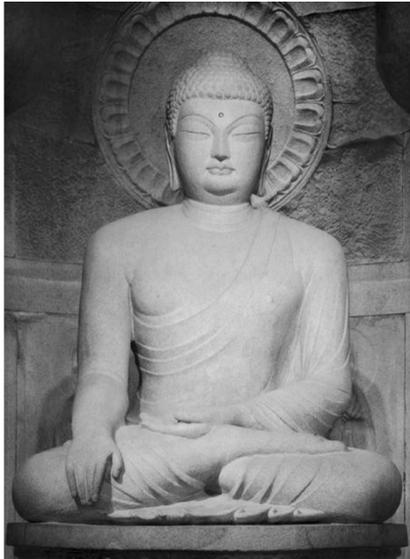
제삼선에서는 제이선에서 얻었던 선정에서 오는 기쁨을 버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불고불락의 사에 머물

로움에 대한 감정이 없게 된 상태이다. 그리고 불고불락의 사에 의하여 제삼선에서 얻었던 정념과 정지가 한층 더 명료하게 되는 경지이다.

제삼선에서는 감정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고와 낙, 희와 우(憂)를 떠나 어떠한 방해도 없이 마음이 명료하게 되어 지혜롭게 사물을 관찰할 수 있게 된 경지이다. 이 단계에서는 마음과 몸이 즐거움과 괴로움의 어떠한 것에도 기울지 않고 고요하게 머물러 정신이 거울과 같은 상태로 되기 때문에 지와 관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즉 마음이 고요에 머무는 사마타와 그 고요함으로 여실하게 사물을 관찰하는 위빠사나가 균형을 이루어 이상적인 선정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의 깨달음의 지혜는 바로 이 제삼선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얻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육구와 의식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옆에 무슨 소리가 나면 귀가 기울여지고 그제 무슨 소리가 분석되게 된다. 예를 들면, 정육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여자 소리가 나면 육



▲경주 석굴암 본존불

욕계정도 반복하면 색계정에 이를 수 있어

러 정념(正念)과 정지(正知)를 지니게 된다. 정념과 정지는 바른 생각과 바른 인식을 뜻한다. 이 단계에서도 물론 심과 사라는 표면적인 의식작용은 사라지게 되며 오직 마음 깊은 곳에서의 이성이 밝게 빛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체적으로는 마음의 고요함에서 오는 안락을 누리게 된다. 이 상태를 깨달음을 연 성현들은 '사(慧)와 염(念)에 의하여 안락에 머문다'고 했다. 여기에는 낙과 심일경성의 이지(二支)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제삼선에 속달되면 제사선(第四禪)에 들어갈 수 있다. 제사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즐거움과 고통을 끊고 이미 기쁨과 괴로움을 떨쳤기 때문에, 사에 의하여 염이 청정하게 된 제사선을 구축한다.

제사선에서는 제삼선에서 얻었던 신체적 안락함인 낙을 버려 욕계정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와 낙, 기쁨과 괴

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에도, 마지막으로 입멸하실 때에도 모두 이 제사선에 머무셨다고 한다. 그리고 삼명육통의神通력을 얻게 되신 것도 바로 이 제사선의 경지에서 얻었다고 하기 때문에 제사선은 지혜를 얻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선정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제사선에서 더욱 깊은 단계의 선정에 들어가면 무색계정의 네 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지에 치우친 선정으로서 마음의 작용이 거의 멈추어버린 상태이므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색계사선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예비단계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신의 통일과 집중을 얻는 수행을 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의 선정을 욕계정이라고 한다.

욕계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신집중과 통일은 되지만 우리의 오관에 대한

시 이쁜 여자가 날 부르는 소리는 아닌가 귀가 쫓겨나기도 하고 식탐이 있는 사람은 맛있는 냄새가 나면 먹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집중하여 자기의 의식을 제어하려고 한다.

욕계정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의 선정이지만, 이러한 욕계정을 반복하여 열심히 수행하면 어느 한 순간 색계의 근본정이 얻어진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는 지속되지 않고 곧 사라져 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복하여 수행하면 점점 쉽게 색계초선에 이를 수가 있고 또 오랜 시간 이러한 경지에 머물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정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한결 쉽게 되어 자유자재로 색계정에 이를 수가 있다.

욕계정은 초선에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초선에서 제이선에 들어갈 때에도 역시 욕계정을 거쳐야 한다. 즉 초선의 근본정에서 제이선의 근본정에 들어갈 경우에 욕계정이라는 예비단계가 필요한데, 이것을 미지정(未至定)이라고 한다. 이것은 제삼선, 제사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반드시 욕계정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총기동의보감

산후부종



조선화 원장 (여성美 한의원)

임신을 하게 되면 평균 산모의 체중은 12-15kg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출산을 하고나면 태아와 양수 및 태반 등의 3-3.5kg 정도의 무게를 제외하고는 고스란히 남게 되어 이후 산후회복과 조리를 어느 정도 잘 해 가는가에 따라서 임신전의 체중과 건강상태로

간혹 유산이나 부인과적인 수술이 후에 나타나는 부종의 원인도 산후 부종과 함께 어혈을 풀어감으로 기혈순환을 도와 개선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후에 산모의 부기를 개선하는데 좋다고 알려져 있는 가물치와 높은 호박 등은 수분대사를 조절함으로써 부종을 빼는 과정의 음식으로 출산 후 산모에게는 적절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가물치의 경우 차고 냉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평소 손발이 차거나 자궁이 냉한 산모에게는 오히려 산후 회복을 지연시키거나 과도한 이뇨작용으로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산후부종치료의 기준은 손상된 기혈을 보강하며 어혈을 풀어 가는 데 있습니다.

또한 산후에 지나치게 실내온도

가물치의 경우 차고 냉한 성질이 있어 손발이 찬 산모에게 회복을 지연시켜

회복되게 됩니다.

출산을 하고난 뒤 산모는 증가한 체중 때문이기도 하지만 출산을 대비해 몸에 축적되어있던 수분과 산후 어혈 등으로 인해서 몸이 무겁고 붓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산후 3~7일간을 일차 산후조리기간으로 보며 이 시기 동안에는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산모와 태아가 안정을 취해주어야한다고 봅니다. 이후 100일간을 이차 산후조리기간으로 보아 산모가 임신전의 체중과 건강상태로 90%이상 회복되게 됩니다.

출산의 과정은 산모로 하여금 많은 양의 기와 혈을 소진하게 되므로 출산을 하고난 뒤 제일 중요한 과정은 손상된 기혈을 보충하고 자궁수축을 도와 어혈을 풀어가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산후조리과정의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부종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인체에서 수분대사가 되지 않아 생기는 부종과 출산 후 산모에게 주로 나타나는 어혈성 부종입니다.

를 올려 과도하게 땀을 배출시키는 과정 또한 오히려 빈혈을 유발하거나 부종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되므로 25-26도 정도의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모들이 주의해야하는 사항 중 산후부종과 산후비만을 혼동하여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하거나 과도한 운동으로 체력소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후부종의 경우 정상적인 수유와 조리과정을 거칠 경우 평균 1-2주정도면 거의 소실되며 산후비만의 경우 출산 후 100일이 지나도 분만 후 체중에서 50-60%정도이상 남아있게 될 때 적절한 원인을 찾아 몸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식이 조절과 운동 등을 병행해 개선하게 됩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과정은 여성들의 건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만큼 개개인의 체질과 증상,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산후조리법을 상담 받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경단(子經丹) 중앙질환 자궁근종 생리질환 불임 자궁어혈케어

여성美 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불임, 임신오자(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자궁 다이어트 - 남성: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 지상설법

## 계율과 예절 ①

### 특정 대중사

어느 불교 승단을 막론하고 그 승단에서 봉직하는 스승은 자기의 거동과 예절을 기쁘고 실천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사실은 두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 종단 스승님들도 승직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실천하는데 주력하고 수행하여 자기의 인격완성을 위하여는 먼저 자신의 수도와 실천이 앞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예컨대 항상 사용하고 있는 기계도 자주 닦고 기름을 치지 않으면 그 기계 자체의 가동목적을 원만하게 이룰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항상 인식하고 있는 일이지마는 중생을 교화하는 스승으로서 내 자신이 솔선 수행하는 데 계율의 기쁨과 정진의 기쁨을 쳐서 스승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추호라도 인색해서는 아니된다. 여기에 불교 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율과 거동 및 예절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취하였으니 아울러 우리 종단에서 이행할 것을 열거하였으니 스승님 각위의 사명의식을 진작 환기하여 이를 깊이 수용하여서 실천수행에 추호의 유류 없기를 기대하는 바이며, 불교 일반에서 계를 받는 일을 예로 들고서 한다. 사미가 구족계(具足戒)를 받으려 할 적에 사미의 할 일을 물어서 옹게 대답하지 못하면 구족계(具足戒)를 주지 않고 말하기를 '그대가 사미가 되고서도 사미의 할 일

을 알지 못하니 사문의 할 일은 더욱 중대하여 행하기 어렵다. 그대는 돌아가서 더 배우라.' 사미의 할 일을 다 듣고 안 뒤에야 구족계를 받게 된다. 여기에 승이 지켜야할 사항을 옮겨적는다.

#### 스승 공경하는 법

- 1. 큰 스승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 2. 큰 스승님께서 계를 말씀하는 것을 엿듣지 못한다.
- 3. 돌아다니면서 큰 스승의 허물을 말하지 못한다.
- 4. 앉아서 큰 스승님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일어나지 않으면 못한다. (경 읽을 때, 병 낫을 때, 머리 깎을 때, 밥 먹을 때, 운령할 때는 일어나지 않아도 좋다.)

#### 스승님 시봉하는 법

- 1. 윗 스승보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
- 2. 방에 들어가려 할 때는 먼저 노크한다.
- 3. 허물이 있어 윗 스승님이 충고할 때 통명스럽게 대답하면 못한다.
- 4. 윗 스승님 대하기를 부처님 대하듯 하여야 한다.
- 5. 더러운 그릇을 비워 오라하면 침 뱉지 못하며 투덜거리지 못한다.
- 6. 스승이 불공하면 절하지 않고 경공양할 때, 누웠을 때는 절하지 않는다. 스승이 문을 닫았을 때에는 문 밖에서 절하지 않고 문 열고 들어가 절하려거든 세 번 노크하되 스승

이 대답이 없으면 물러가야 한다.

- 1. 스승님 드실 음식을 드릴 때에는 두 손으로 받들고 다 드셨거든 잔잔히 그릇을 거두어야 한다.

- 2. 스승님을 모실 때에 마주서지 못하며 높은 데 서지 못하며 너무 멀리 서지 말고 스승님의 적은 말씀도 잘 들리도록 하여 스승님이 힘드시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불법인연을 물물려면 가사를 정돈하고 예배 합장하고 꿇어앉을 것이며 스승님이 말씀하는 것은 정신 차려 듣고 잘 생각하라.
- 4. 집안 일을 물을 적에는 절 할 것 없고 곁에서 단정히 서서 사실대로 여쭙는다.
- 5. 스승님이 고단하여 물러가라하면 곧 물러가고 불쾌한 기색을 보여서는 안 된다.
- 6. 계를 범했거나 잘못된 일이 있거든 숨기지 말고 스승님께 가서 참회하기를 애걸하되 스승님이 허락하면 솔직하게 말하고 정성껏 회개하면 도로 깨끗해진다.
- 7. 스승님이 말씀을 끝내기 전에 말하지 못하며 스승님 자리에 잔란삼아 앉지 못하며 스승님 평상에 눕지 못하고 스승님의 옷과 모자를 입거나 써보지 못한다.
- 8. 스승님이 손님을 맞으셨거든 자리에 셋거나 스승님 곁에 셋거나 스승님 뒤에 셋거나 하여 반드시 귀와 눈이 스승님과 마주쳐서 스승님의 시킴을 기다려야 한다.
- 9. 스승님이 병들거든 정성을 다하여 간호하며 방과 이부자리와 약과 드실 것을 날날이 정성껏 보살펴야 한다.

- 10. 스승님을 모셨을 적에 앉으라 하지 아니하면 앉지 못하며 묻지 아니하면 말하지 못한다. 내가 물을 일은 물을 수 있다.
- 11. 스승님을 모시고 객실 적에 벽에 기대거나 탁자에 의지하지 못하며 몸을 바로 하고 발을 모아 한쪽 곁으로 서야 한다.
- 12. 예배하려 할 적에 스승님이 그만 두라 하면 명령대로 그만 둔다.
- 13. 스승님이 손님과 말씀할 때에 법에 대한 말씀으로서 내게 이익한 것이면 모두 명심해서 생각하여야 한다.
- 14. 스승님이 시키는 일이 있으면 제 때에 꼭꼭 하여야 하며 여기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 15. 잠잘 적에 스승님보다 먼저 자면 안된다.

#### 대중 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

- 1. 앉은 자리를 다투면 안된다.
- 2. 자리에 앉은 대로 서로 불러 말하고 있으면 못한다.
- 3. 대중 가운데 잘못하는 이가 있으면 나쁜 일은 숨겨주고 잘한 일은 칭찬할 것이다.
- 4. 제 자랑하여 공치사하면 못한다.
- 5. 큰 소리로 코 풀고 가래침 뱉으면 못한다.
- 6. 불전(佛殿)이나 경내, 공양처 등에서 코를 풀거나 침 뱉지 않는다.
- 7. 차를 마시면서 한 손으로 인사하면 못한다.
- 8. 너무 웃지 말며 크게 웃거나 하품하게 되면 입을 가려야 한다.

- 9. 부처님께 공양하는 꽃은 잘 핀 것을 택하되 냄새를 먼저 맡지 말며 시들은 것은 틀어내고 새것을 공양하며 시들은 것은 땅에 던져 밟게 하지 말고 외판 곳에 버려야 한다.
- 10. 부르는 소리 듣고 대답하지 않으면 못한다. 부르면 엎볼로 대답하라.
- 11. 흘린 물건을 주으면 책임있는 이에게 말한다.
- 12. 옷을 많이 만들면 못한다 남는 것은 남을 주라.
- 13. 사치하고 호사스런 장식품을 만들어 돌아다니는 몸을 단정하여 이는 이들의 웃음거리가 되면 못한다.
- 14. 물색 옷이나 세속 사람과 같은 옷을 입거나 장식품을 가지면 못한다.
- 15. 부정한 손으로 가사를 수(受)하면 못한다.
- 16. 부질없이 다니면 못한다.
- 17. 말을 많이 하면 못한다.
- 18. 대중 운력하는 것을 보고 피부리고 혼자만 편안하려 하면 못한다.
- 19. 상주물을 제것으로 만들면 못한다.
- 20. 정부나 관청에서 하는 일이 잘하고 못한다거나 속인들의 옳고 그른 것을 말하면 못한다.
- 21. 적은 일을 다투거나 고집하면 못하고 그냥 볼 수 없는 큰 일이면 좋은 마음과 화평한 기본으로 사리대로 말할 것이며 그대로 들지 않거든 그만두고 가되 성내고 큰 소리 하면 접잖은 중이라 할 수 없다.

### 보시바라밀다부터 수행할 것을 설함

이때, 세존께서 선남자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잘 들어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육바라밀다(六波羅密多)의 법을 말하리라. 선남자여, 만약 보살이 되려고 하면, 마땅히 먼저 보시바라밀다를 수행하고, 그렇게 한 후에 이러한 지계, 인욕, 정진, 정려(선정),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야 원만구족(圓滿具足)함을 얻게 되느니라." 이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나서 말없이 계시니, 그 때 거기에 모였던 대중들이 각각 물러나 본래의 거처로 돌아갔으며, 거기에 있던 보살들도 또한 물러나 본래의 불국(佛國)으로 돌아갔다.

- 대중장엄보원경 -

###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두렷이 깨달을 널리 비치니

고요함과 없어짐이 돌이 아니로다.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마다 묘한 이치로다. 보고 듣는 이것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아아 여기 모인 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그대로 산이요, 물은 그대로 물이로다.

- 성철 스님 -

### 거짓말의 결과

옛날 어떤 사람이 검은 말을 타고 전쟁터로 나아갔다. 그러나 적이 두려워 감히 싸우지 못하였다. 그래서 얼굴에 피를 바르고 거짓으로 죽은 것처럼 꾸며 죽은 사람들 속에 누워 있었다. 그가 뒀던 말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 군사들이 모두 떠나자, 그도 흰 말꼬리를 베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옆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 진리의 여율

"네가 뒀던 말은 지금 어디에 있기에 걸어오는가." 그는 대답하였다. "내 말은 전쟁터에서 죽었다. 그래서 그 꼬리를 가지고 왔다." 옆 사람이 말하였다. "네 말은 본래 검은 말인데 왜 흰 꼬리인가?" 그는 잠자코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다. 스스로 인자한 마음을 잘 닦아 행하므로 술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생을 살해하고 온갖 고통을 주면서 망령되어 착하다고 한다. 그것은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말이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괴로움과 즐거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욕설과 비방을 참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니 돌가무를 두 눈에 넣는 것과 같고, 욕설과 비방을 잘 참는 것은 지혜로움이니 높은 데 올라앉은 것과 같다. 욕설과 비방으로 지혜로운 이를 어찌하지 못함은 큰 바위가 폭우에 맞아도 부서지지 않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괴로움과 즐거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잡보장경-

### 공포를 사라지게 하려거든

너희가 아무도 없는 광야를 갈때 어려가지 공포가 있을 것이다. 마음은 놀라고

머리카락은 곤두설 때가 있으리라 공포를 사라지게 하려거든, 첫째, 부처님을 생각하라. 부처님은 마땅히 공양받아 마땅한 분이며, 부처님은 정각을 이룬 분이며, 세상에서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공포가 사라질 것이다. 둘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라.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은 현재에 능히 번뇌를 떠나게 하고 때를 기다릴 필요 없이 결과가 나타나며, 통달 친근하여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포가 사라질 것이다. 셋째, 스님들을 생각하라. 부처님의 제자들은 잘 수행하고, 올바르게 수행하며, 세상의 복전이라고 생각하라. 이리 생각하면 공포가 사라질 것이다.

- 잡아힐경 -

### 반푼의 빛과 네 냥의 손해

옛날 어떤 상인이 남에게 돈 반푼을 빌려쓰고 오랫동안 갚지 못하였다. 그는 빛을 갚으려 떠났다. 그 앞길에는 큰 강이 있었다. 뱃사람으로 두 냥을 주어야 건너갈 수 있었다. 그는 빛을 갚으려고 갔으나 때마침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강을 건너 돌아오면서 또 두 냥을 써 버렸다. 그리하여 그는 반푼 빛을 갚으려다 도리어 네 냥의 돈을 손해 보고 말았다. 진 빛은 극히 적었으나 손해는 아주 많아 결국 여러 사람들의 비웃음만 당하였다. 세상 사람도 그와 같다. 작은 명예와 이익을 구하다가 도리어 큰 손실을 보게 되나니, 제 몸을 위하여 예를 돌아보지 않으면, 현재에는 허명을 얻고 미래에는 괴로움의 깊음을 받는다.

- 백유경(百喻經) -

# 대구 경북 교구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총지종 대구 경북 교구 합창단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자비를 실천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모집대상 : 모든 불자
- ◆ 모집시기 : 수 시
- ◆ 연습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 연습장소 : 대구 개천사 합창단실
- ◆ 연락처 : 최지형 단장 053)425-7910
- ◆ 지휘자 : 배해근



규제와 편견의 한계를 넘어선 여성들

# 진혜 대사

진혜대사가 살았던 고려는 불교국가였다. 따라서 승려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 과거 시험에 승과 제도가 있어서 승려도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관직에 나갈 수 없었고 마음대로 승려가 될 수 없었다.

주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승려(비구니)가 되었다. 남편을 잃은 서민 여성들이 재혼이 어려워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시대에는 불교 자체가 대체로 여성들은 도를 깨우치고 성불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당당히 '대사' 칭호를 받은 여성이 있었다. 대사는

죽은 후부터 시작 되었다.

총렬 왕 27년 남편이 죽자 나라에서 베풀어 주는 의식을 모두 사양하고 스스로 장례도구를 마련하여 대덕산 남쪽에 묘지를 만들어 장례를 지냈다. 장례가 끝나고 가까운 곳에 집을 짓고 그 근처에 '감응사'라는 절을 지어 남편을 위해 불공을 드렸다. 이 때 진혜대사의 나이는 47세였다. 집안의 재화와 보물을 털어 금과 은 글씨로 사경을 하고 이 이외에도 많은 불사를 일으켰다.

이때부터 진혜 대사는 고려의 귀족 여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

총렬 왕 28년 중국에서 '무선사'라는 사람이 왔다. 진혜 대사는 그를 만

으면 비구니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결혼 후 남편이 죽거나 자식들이 장성한 후 또는 임종 직전에 해야 했다. 진혜 대사의 경우도 남편이 죽은 후 비구니가 되었지만 다른 여성 불교신자와는 다른 아주 적극적인 신앙 활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남달랐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귀족 여성들이 불경을 읽거나 염불, 시주 등을 열심히 했다면 진혜 대사는 전국 산천 곳곳을 다니며 10여 년간 구도 여행을 했다.

출가 동기 속에는 쉽게 집을 떠나 마음대로 원하는 장소에 가거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마음껏 세상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포함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진혜 대사는 충숙왕 7년(1320)년 장남의 집 근처인 개성 남산의 남쪽에 초당을 짓고 머물다가 4년 후 병이 들어 향년 70세로 세상을 떠났다. 임종할 때에도 말이 어지럽지 않고 행동이 평소와 같았다고 한다.

담당 관리가 부음을 알리니 임금도 그 절의 한결같은 찬탄하고 '변한국대부인 진혜 대사로 추봉 했다.

이는 그의 사후에 주어지던 시호이므로 한계는 있지만 이것이 고려 500년을 통해 비구니로 대사 호칭을 유일하게 받은 유일한 사례다. 이는 그의 불교적 행적은 기록으로 알아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사라는 호칭을 내려 줄 만큼 불교적 행적이 뛰어났다는 사실을 보



▲ 진혜대사가 수행했던 양산 통도사. 신라제 27대 선덕여왕 15년(646) 자장율사스님에 의하여 창건되었으며 우리나라 삼보사찰(三寶寺刹)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 진혜대사는 고려 500년을 통해

## 비구니로 대사 호칭을 유일하게 받아

승과에 합격한 남성들에게 내리는 '대덕' 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이다.

진혜 대사는 명문 양천 허씨 가문의 장녀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수상을 지낸 허공이었고 어머니는 윤관의 후손이었다. 그 시대 제일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성품이 정숙하고 신의가 있으며 아름답고 조신했다고 한다.

14살 때 언양 김씨 가문의 김 변과 결혼했다. 김 변과 진혜 대사 사이에는 아들 4명과 딸 3명이 있었다. 그는 다른 여인들과 같이 혼인 해서 남편을 섬기고 음식이나 길쌈에 힘쓰면서 아내의 도리를 다 했다. 어머니가 되어서는 자식을 훌륭히 키웠다.

진혜 대사의 제2의 인생은 남편이

나고 그의 불사에 참석하여 법문을 들었다. 총렬 왕 30년 '철상화상' 이 강남에서 왔을 때는 그에게 대승 계를 받기도 했다.

그 후에도 미륵대원(미륵사지로 추정)에 가서 석불에게 예를 올리고 여러 산천을 순례 하면서 많은 유적지를 탐방했다. 그리고 드디어 충숙 왕 2년(1315)에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다.

비구니가 된 이후에도 그는 계속 성지순례를 다녔다. 통도사에 가서 사리도 얻었고 경주 계림으로 가서 마음껏 장관을 돌아보고 왔으며 이 밖에도 그가 밟은 전국 사찰이 수도 없이 많았다.

고려 시대에는 남편이 허락하지 않

여 주고 있다.

그는 여성이어서 집을 떠나 마음대로 구도 여행을 할 수 없었음에도 그 한계를 뛰어넘어 10여년 동안 마음껏 구도 여행을 했다.

비구니가 되기 힘들었던 한계를 넘어 비구니가 되었고 그의 사후에는 고려 500년 동안 아무도 해 내지 못했던 대사가 되었다.

그는 여성에게 내려진 온갖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낸 진정한 선구자라고 생각된다.

-박묘정-

\* '세상사는 이야기'가 '규제와 편견의 한계를 넘어선 여성들'로 기사를 당분간 대신합니다.

### 불교설화 <56>

# 소물이 노인과 무학대사

조선 건국초, 송도 수창궁에서 등극한 이성계는 조정 대신들과 천도를 결정하고 무학대사에게 도움을 찾아달라고 청했다.

무학대사는 옛 부터 신령스런 산으로 알려진 계룡산으로 내려가 산세와 지세를 살폈으나 아무래도 도읍지로는 적당치 않았다. 발길을 북으로 옮겨 한양에 도착한 스님은 봉은사에서 하룻밤을 쉬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뚝섬 나무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니 넓은 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사방으로 지세를 자세히 살핀 스님은 그곳이 바로 새 도읍지라고 생각했다.

『음, 땅이 넓고 강이 흐르니 과연 새 왕조가 뜻을 펼 만한 길상지로구나.』

무학대사는 흐뭇한 마음으로 잠쉬고 있었다. 이때였다.

『이놈의 소는 미련하기가 꼭 무학 같구나. 왜 바른길로 가지 않고 굳이 굽은 길로 들어서느냐?』

순간 무학대사의 귀가 번쩍 뜨였다. 고개를 들고 돌아보니 길 저쪽으로 소를 몰고 가는 한 노인이 채찍으로 소를 때리며 꾸짖고 있었다.

스님은 얼른 노인 앞으로 달려갔다.

『노인장, 지금 소더러 뭐라고 하셨는지요?』

『미련하기가 꼭 무학 같다고 했소.』

『그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지요?』

『아마 요즘 무학이 새 도읍지를 찾아다니는 모양인데, 좋은 곳 다 놔두고 엉뚱한 곳만 찾아다니니 어찌 미련하고 한심한 일이 아니겠소.』

무학대사는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스님은 공손히 합장하고 절을 올리며 말했다.

『제가 바로 그 미련한 무학이옵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곳이 좋은 도읍지라고 보았는데 노인장께서 일깨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도읍지가 있으면 이 나라 천년대계를 위하여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채찍을 들어 서북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서부터 10리를 더 들어가면 주변 지형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시오.』

『노인장,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학대사가 정중하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순간, 노인과 소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스님은 가벼운 걸음으로 서북쪽을 향해 10리쯤 걸었다. 그때 스님이 당도한 곳이 바로 지금의 경복궁 근처였다.

『과연 명당일구나.』

삼각산, 인왕산, 남산 등 사람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땅을 보는 순간 무학대사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만면에 미소를 띤 스님은 그 길로 태조와 만나 한양을 새 도읍지로 정하여 도성을 쌓고 궁궐을 짓기로 했다.

『스님, 성은 어디쯤을 경계로 하면 좋겠습니까?』

태조는 속히 대역사를 시작하고 싶었다.

안을 넘겨다보는 형국이므로 불교가 결코 흥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정조전 일파 역시 인수봉 안으로 성을 쌓아야 유교가 흥할 수 있다는 지론이었으므로 무학대사 의견에 팽팽히 맞섰던 것이다.

입장이 난처해진 태조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 결정기로 했다. 날을 잡아 제사를 지낸 이튿날이었다. 밤새 내린 눈이 불멸에 다 녹아내리는 데 축성의 시비가 일고 있는 인수봉 인근에 마치 선을 그어 놓은 듯 눈이 녹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정조전 등 대신들은 이 사실을 태조에게 즉시 고하고 이는 하늘의 뜻이므로 도성을 인수봉 안으로 쌓아야 한다고 거듭 주청했다.

『거참 신기한 일이로구나. 그 선대로 성을 쌓도록 하시오.』

이 소식을 들은 무학대사는 홀로 탄식했다.

『역불의 기운이 감도니 이제 불교도 그 기운이 다해 가는구나.』

그리고 노인이 무학대사에게 10리를 더 들어가라고 일러준 곳은 갈 「왕(往)자(往) 십리(十里)를 써서 왕십리(往十里)」라고 불렀다.

일설에 의하면 소를 몰고 가다 무학대사의 길을 안내한 노인은 바로 풍수지리에 능했던 도선국사의 후신이라 한다.

이런 유래로 왕십리에 속했던 일부 지역이 도선동으로 분할됐다. 도



▲ 현재의 서울 왕십리 네거리. 왕십리역은 강북의 동북방향과 선릉/분당을 이어주는 지하철이 개통 될 예정이다.

선동은 1959년부터 행정동명으로 불리다가 1963년 법정동명이 됐다.

왕십리 청련사 부근에는 무학대사가 수도하던 바위터가 있었고 주위에는 송림이 울창했다고 하나 지금은 주택가로 변해 찾아볼 길이 없다.

다만 청련사 밑에는 무학과 발음만 같고 글씨는 다른 무학봉이 있고 이 이름을 딴 무학초등학교가 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무학봉에서 도선국사가 수도했다는 전설도 있어 왕십리는 도선·무학 두 스님의 인연 지인 것 같다.

무학대사는 조선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나라를 받든다는 뜻으로 사찰을 세웠는데, 그곳이 현재 정릉에 있는 봉국사(奉國寺)이다.

# 정

# 금산인삼

02. 499-9006

# 이전 확장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축

### 홍삼기능식품

산삼과 흑삼 엑기스 2400g  
즉석판매  
국내산 약초 → 현지 직송



###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킨)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사장 길경임 (벽룡사교도)  
010-9960-8778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동원시장 뒷편 금강산 사우나 앞에서 우측 30m

날마다 좋은날

# 연희단 관불 참가기

심일화 총지사



▲ 여원정에서 연희단교도들은 점심공양과 휴식을 기렸다. 오른쪽 맨위에 있는 하얀모자 쓴 보살이 필자다.

오늘 드디어, 사월초파일 봉축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우리 스스로에게 상을 주는 날이다!  
8시 옛 동대문운동장에서 출발한 버스는 산천이 연록색의 푸르름으로 펼쳐져 있을 지리산 배래봉을 향해 힘찬 시동을 걸었다.

그 어느때 보다도 껍찬 인원은 근 몇달동안 연습을 거치면서 주고 받았던 소통과 화합의 마음들을 읽는 듯 느껴졌다.

누구보다도 합창단에 애정이 깊으신 총지화 큰 스승님도 예의없이 참석해 주셨고 선도원전수님, 정심사 진일심전수님도 함께 힘을 실어주셨다. 그러고보니 이번엔 법경정사님을 비롯해 각자님도 세 분 계시네!!!

처음으로 김양희 지휘자님도 함께 하였고~ 모두가 이심전심으로 참석 하신것을 보니 그간 몸과 마음이 탈진상태였던 박정희단장님의 노고가 한순간에 회복 되는것도 같다.

총지화 스승님은 우리들에게 총지종의 기둥이 합창단이라는 말씀, 최상승의 진언법으로 눈이 맑아지는 모습이 되리면서 그릇, 근기, 업의 무게에 따라 수행방법이 달라진다고 하셨다.

영험과 묘력이 일어날 수 있는 진언은 진언방법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 내 마음 속에 큰 스승님의 법문이 그대로 들어와 각인된다. 모든 즐거움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회장님 그런 과정을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 오늘따라 정말로 스마일상이다..

소중한 날! 사랑하는 날! 좋은 추억을 만드는 날! 김은숙회장님의 선창에 따라 우리들은 큰 울림으로 화답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한가지 장기를 지니고 태어나는가 보다. 박종한교무님은 넌센스 퀴즈 달인자다.

초등학생 아이들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답을 생각하는 연희단원의 모습들이 너무 너무 진지하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재주가 참 탁월하

다는 생각이 든다.

장박에 눈을 돌릴 틈도없이 오락시간에 빠져 있다보니 어느새 목격지에 거의 온 듯 싶다. 조금 높은 지대에 팔각정이 있는 장소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점심공양을 하고 곧장 배래봉입구에 도착했다. 정상까지는 5.6km 모두가 자유로이 자신의 체력에 맞게 산에 오르자고 격려하며 출발했다.

늘 느끼는거지만 자연은 참 푸근하다. 그 푸근함이 여유를 가져와 나의 일상을 점검하고,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자연은 사색적 공간이다. 길이 끝나는 곳 까지 오르고 싶었지만, 한 낮의 띄어별이 너무 강해 어느 지점에서 일행을 만나 주지 않았다.

연록색의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산의 향기, 젖은 머리를 식혀주는 상큼한 바람!

“여기가 정상이야!”

누군가 그 말을 하기 무섭게 다들 기다렸다는 듯 동조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비탈을 내려오면서 근처에 있는 “운지사”라는 절에 들렀다. 작고 소담한 절풍경이 옛스러워 보인다. 부처님의모습도, 앞산과 뒷뜰이 보이는 행랑채의 마루도 소박해서 정겨웠다. 4시에 서둘러 남원시에 있는 광학루로 향했다. 이 도령과춘향의 사당이 있는곳을 방문하고 주변에 있는 그 유명한 남원추어탕에서 저녁식사를 해결하고 차에 오르면 6시! 이제 서울까지 그냥 내쳐 올라가면 된다. 빠른 템포의 음악을 들으며 서울에 도착한 시간은 밤 9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모두가 지쳐있을 법도 한데 출발시처럼 생생하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 보인다. 아마도 소중한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었기 때문일것이다.

## 우리들 이야기

### 탐욕

욕심은 늘 자신을 초라 하게 만들어 버린다

초라한 자신을 돌아 보면 한없이 가슴에 통증을 느낀다.. 그통증은 이내 눈물이 되어 흐르고 그눈물조차도 어느때 사치스러워지고 못다 토해낸 마음은 아쉬움으로 남아지고 다시도 탐욕으로 채워진다

내것이 아니면 탐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리석은 마음 하나로 또다시 참회하는 마음이 생긴다..

비가 내린다 가슴은 시원해지고 그리움은 더 진하게 다가온다 사는데 다 이런것이겠지 한잔의 커피로 달래보는 그리움 그리움이 사랑이 되어 내게 오는날 다시금 외로움 되리라...

혜덕화 (진언행사 카페에서)

### 생활상식

#### ◀ 데어서 물집이 생긴 경우

살갓이 텐 자리에 물집이 생겼을 때는 감자를 강판에 갈아서 환부에 습포를 하면 빨리 낫는다. 이것은 산성화한 환부의 피부에 감자의 알칼리 성분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데었을 당시의 응급 처치는 우선 화기를 빼는 것이 선결 문제이므로 얼음 찜질을 하거나 수도를 틀어 놓고 환부에 찬물을 끼얹어 화기를 빼도록 해야 한다.

#### ◀ 살에 박힌 가시를 제거할 때

가시가 살에 박혔을 경우에는 우선 가시가 박힌 곳에 얼음을 갖다 대고 피부의 신경을 마비시켜 둔다. 이 때 알레르기 가시는 바늘이나 족집게로 뽑아 낼 수 있지만 깊이 박혔을 때는 신경통에 바르는 고약을 발라 두면 열과 통증도 사라지고 고약을 떼어 낼 때 가시가 같이 뜯어 나온다.

#### ▶ 손을 베었을 경우

부엌일을 하다가 칼에 손을 베는 경우에는 얼른 피를 닦고 달걀 껍질에 붙은 얇은 막을 떼 내어 상처에다 붙이면 피가 쉽게 멈춘다. 그리고 뜨거운 김이 나는 숯이나 냄비 안에 손을 넣었다가 데는 일이 있는데 뜨거운 김이 나는 숯 안에 손을 넣을 때는 우선 찬물에 손을 담가 적신 다음에 넣으면 손을 났을 염려가 없다.

#### ▶ 꿀 깔끔하게 떨어내기

손가락을 마리 뜨거운 물에 담갔다 꿀을 떨어 내보자. 그러면 흘러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낼 수 있다.

#### ▶ 새치에 도움 되기

젊은 사람들에게 생기는 새치는 노인들과는 달리 리카락 속에 기포가 들어가서 희게 된 것이므로 산소 공급을 위해 비타민 E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불교상식 7

### 생활 불교 (生活佛敎)

불교의 교리는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실천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성불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실천은 어떻게 하나?”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총지종은 생활 불교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생활불교란 불교를 생활화한다는

뜻입니다. 흔히들 종교생활을 현실생활과 분리하여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부처님의 마음을 받아 삼기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생활불교인 것입니다.

## 이달의 추천도서

도서 **그대 삶이 경전이다**

대 삶이 경전이다가 출간되었다.

무각 편 | 불광출판사

**술 잎 사이 바람소리**

편집부 저 | 불교신문사

**행복을 찾아가는 절집기행 - 서울**

임연태 저/이승현 사진 | 클리어마인드



100여 권을 훌쩍 넘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입문자를 대상으로 해설하다 보니 한 책에 금강경이 견지하고 있는 반야공의 이해나 선의 견지를 모두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기존 입문자용 금강경을 읽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독자라면 만족할 만한, 중급자를 대상으로 한 『그



이 책은 불교신문사 김선두 편집국장이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불교신문에 연재한 ‘연화실 법향’이라는 코너를 한 곳에 묶은 것이다. 지종스님, 성수스님, 고산스님 등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정진한 우리나라를 대표하



만한 사찰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절집기행문을 엮은 것이 『행복을 찾아가는 절집기행 - 서울』이다. 그동안 본인이 자주 드나들던 사찰들 중 서울 안에 있는 절집을 중심으로 총 열 일곱 곳의 사찰을 소개했다. 또 절에 가도 웬지 모를 어색함 때문에 누구에게 자 세히 묻거나 볼 수 없었던 소재들의



이 책은 사찰음식을 통해 마음을 맑히고,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여 병고를 녹여내는 방법을 알려준다. 저자는 교황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자란 제철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봄·여름·가을·겨울의 제철 음식 재료와 요리 종류를 소개하고, 맛 좋은 장 담그는 방법과 다양한 사찰 감치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

#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교 훈 신 의  
성 실  
정 직  
교 목 보리수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교무실 : 051-555-4458 / 행정실 : 051-556-0281 / 교장실 : 051-552-0011



# ‘근대불교 100년과 퇴옹성철’ 2차 학술포럼

## 자기를 바로 보자...불자는 불자답게



▲ 사부대중이 ‘근대불교 100년과 퇴옹성철’ 학술포럼에서 발표와 토론을 관심있게 지켜 보았다.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제2차 학술포럼이 5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포럼은 ‘한국 근대불교 100년과 퇴옹성철’ 주제로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하여 근대 한국 불교의 재조명과 성철스님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하는 자리였다.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개회사에서 “성철스님의 선수행이 다른 스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한국 불교 수행의 미래 비전을 찾아보자”고 포럼의 개최의의를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경집 진각대학교 교수는 ‘근대 한국불교의 선종과 퇴옹성철의 수행’ 주제에서 “성철스님은 인간 본성에 대한 자각을 통해 물질적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강조하였다. 그것은 원래 구원되어 있는 자신을 바로 보자는 제시였다. 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참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수행관은 90년대 이후 한국불교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다.

조명제 신라대학교 교수는 비구·대처승 분쟁을 설명하면서 “한국 전쟁후 1950년대 한국불교는 중생 구원은 고사하고, 자기이권에 눈먼 집단으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비구승들이 수행풍토를 회복하겠다는 구원은 뒤로 한 채 승가중심의 교단으로 회귀하면서 재가 신도의 역할과 기능은 무시되었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차차석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립과 갈등의 근대사와 중도법문의 의미’에서 성철스님의 중도의미, 중도사상을 기반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사건들, 성철스님의 중도론이 지니는 시대적 한계에 대해 서론을 잡았다. 그리고 성철스님은 쌍차쌍조의 중도사상이 중도론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학술포럼은 2013년까지 4회로 계속 열리며 9월에는 ‘현대 한국 사회’와 11월은 ‘종교의 현실 참여’라는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 자승스님, 조현오 경찰청장 치하

### “연등축제 원만회향 협조에 감사”



▲자승스님이 조현오 경찰청장(사진 오른쪽)에게 연등축제의 원만회향에 협조한 공로를 치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5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등축제가 원만하게 회향하도록 협조해준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자승스님은 “30여만 명이 참가한 서울의 연등축제 뿐만 아니라 지방 200여 개의 도시에서 진행된 봉축행사가 많은 경찰관들의 협조로 원만히 진행돼 감사

하다”며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조현오 청장은 “국민적 축제가 잘 진행돼 기쁘다”면서 “특히 많은 외국인의 참여에 놀라웠고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오 경찰청장은 불교 총지종 종립학교인 부산동해중학교 등

## 전통사찰 건폐율 10% 완화

### 조계종 “중단과 협의 없이 일방결정”

전통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통사찰을 비롯한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완화돼 증·개축 등 관리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월 27일 밝혔으며,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통문화건축물이란 전통사찰, 지장·등록문화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향교, 서원, 고택 등을 말한다.

이들 전통문화건축물은 그동안 건폐율이 20%로 낮아 증·개축 등 관리, 보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게 개정 이유이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건폐율이 완화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불교계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실은 “실령 30%로 완화된 다하더라도 화재사 도선사 등 많은 사찰들이 이미 증개축한 건축물들이 이 범위를 넘어선 상태로 거액의 강제이행금등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10%포인트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불교계가 불만을 표시하는

이유에 대해 기획실은 “정부가 기존 법령을 정할 때 문화재인 전통사찰을 일반 가옥과 같이 취급해 일방적으로 증개축시 건폐율을 20%로 묶었고, 종교 활동상 필요에 의해 증개축을 한 사찰들의 건폐율이 30%를 상회하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이다”고 밝혔다.

## 제3회 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 개최

### 8월 28일 시행, 학생과 장병대상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스님)이 제3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를 8월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시대회는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전하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익힐 기회를 제공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사단법인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사단법인

동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공동 주관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생과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전주·남양주·평택 등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시상은 초·중·고 각 부문 대상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이다.

## 토랑 추기경 조계종 방문

### 7대 종교지도자와 간담회



▲ 추기경으로는 조계종을 처음 방문한 토랑 추기경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탁본체험을 하고 있다.

교황청 종교간 대화평의회 의장 토랑 추기경이 5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만나 환담을 나누었다.

추기경으로는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한 토랑 추기경은 오는 10월 교황청이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개최하는 ‘세계종교인평화기대회’에 참석

자승스님은 “세계종교인평화기대회에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뒤 “조계종이 오는 2013년 개최하는 세계종교지도자포럼에도 교황청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자승스님은 토랑 추기경에게 범종모형을 선물하였으며, 토랑 추기경은 불교중앙박물관을 관람하고 불교전통 연꽃문양의 탁본체험을 했다.

이후, 주한 교황청 대사관에서 한국 7대 종교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겸한 오찬을 갖고 종교화합과 평화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원불교 교정원장 김주원 교무, 선공관 최근덕 관장, 천도교 임운길 교령, 정교회 이항래 이맘, 성공회 윤종모 주교,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전 사무총장 채수일 목사 등이 참석했다.



## 천태종, 전통명상수련센터 세운다

### 분당 대광사서 기공식

천태종은 5월22일 분당 대광사(주지 월도스님)에서 명상과 다도 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명상수련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천태종 전통명상수련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하 1층에는 연면적 3580㎡(1천80평)의 대강당과 지상 1층과 2층에는 425㎡의 다도문화센터와 천태명상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건립기공식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은 “선(禪)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자유와 안정을 찾아주는 ‘명상’이라는 이름의 치유와 정신문화의 향유로 탈바꿈한다는 사실은 더욱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대광사 주지 월도스님도 “명상수련센터가 건립되면 지역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도권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행복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새움디자인은 건축설계와 인테리어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형태의 조직을 취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바탕으로 한 인테리어 영역까지의 확장이기에, 장식적인 접근보다는 철저한 기능위주의 과정을 거쳐 그 공간이 지녀야 할 표정을 부여하는 “감성적 모더니즘” 을 추구합니다.**

중국 황산 산행기 벽룡사 양재범

# 벽룡사 교도들, 중국의 황산에 오르다

5월16일 3박4일로 벽룡사 교도들이 황산 산행을 떠나는 날이다.

모두가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웃음꽃이 피었다. 벽룡사산악회 황산등정원만과 일기청정 불공을 하고 우리들은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배웅나오신 각자님과 보살님 남겨두고 뒤돌아서는데 문주란의 "공항의 이별"가사가 마음한 구석을 스쳐지나간다. 12시발 중국 남방 항공기로 중국상해를 향해 하늘 높이 날으기 시작했다. 구름을 발밑에 두고 눈앞에는 푸른, 청정하늘만 보였다.

불가에서 말하는 삼천대천세계의 최정상 비로자나 공전이 바로 여긴가 보다.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노력해야 부처님의 세상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늘 높이 우주 전체가 바로 비로자나공전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신비하고 경이로운 생각이 절로든다. 오후 2시 상해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직원의 미숙인지 우리는 까다로운 절차를 받으며 지금까지 즐거운 여행이 조금 짜증으로 변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참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대륙에 왔으니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배워보라는 당체법문을 보여주신 것 같았다. 드디어 검정양복을 말숙하게 차려입은 현지 가이드를 만나 안내를 받으며 차에 올랐다. 버스 전면 유리 앞에는 벽룡사꽃말이 달려있었다.

중국대륙에 총지중 벽룡사를 널리 홍보하고 다녀야겠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뻘뻘했다. 상해는 서울의 강남에 해당이 된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것 세 가지는 다민족 인구(56민족), 자전거, 가짜란다. 그리고 평생못하고 죽는 것은 중국말을 다 알아 보지 못하는 것이요, 평생을 공부해도 다 익힐 수 없는 복잡한 한자요, 먹을것을 다 먹어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생활상과 거대한 중

도 느낄 수 있었다.

단체 기념사진을 한두 장 찍고 7시에 송정가무쇼관람을 하였다.

웅장한 스케일의 무대조명과 스토리가 있는 아름다움의 극치였다. 한국관광객을 위해 아리랑도 들려 주었다. 외국 나오면 모두가 애국자라 했던가. 아리랑 가락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대한민국 국민임이 이렇게 가슴벅찰 줄이야. 가무쇼 감동의 여운을 가슴에 안고 황산을 향했다. 30분정도 달려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밤 12시가까이 되어 숙소에 도착하였다.

### 5월17일 화요일 둘째날

5시30분에 일어나 아침점심과 아침식사를 하고 8시30분에 출발. 여제는 도로변에 들관이 많았는데 오늘은 산들이 많아 눈의 피로도 가시고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중국은 공산당이 8천명이며 대부분 군인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8억명의 청년이 15억명의 중국인의 생활을 책임진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군인이 최고 대우를 받으므로, 지원이 쇄도하고 있다고,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것 같다.

1949년 모택동 문화혁명때 국민들에게 토지를 분배, 임대해주었다 고한다. 1980년도 전안문 사태때 등소평이 개혁, 개방정책을 쓰면서 능력에 따라 빈부격차가 벌어졌다. 2004년도부터 농민에게는 세금이 면제되고, 토지의 개인소유가 인정되어 매매가 성행하였다고 한다. 중국은 군인, 경찰, 보안관 순으로 생활이 안정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5대 명산인 황산은 1979년도 등소평의 지시로 개발이 이루어 졌다. 케이블카는 총연장 6.5km의 상당히 길게 연결되었다. 황산은 날씨가 안좋아 7~80%는 자세히 보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은 비로자나부처님의 가피로 날씨가 청명하여 자세히 전체를 구경할 수 있었다.

비나 구름 때문에 전체를 구경할 수 있는 날이 몇일 안된다며 가이드도 화창한 날씨로 이런 멋진장관을 보는 것은 정말보기 드물다며 감탄했다. 케이블카로 산에 오른후 동해와 북해, 천해(광명정)의 기암절벽의 웅장한 모습을 골고루 구경할 수 있었다. 황산은 연화봉이 1,840m로 가장 높고 광명정이 1,806m로 두 번째로 높았다. 연화봉에서 본 멋진 풍경을 가슴에 가득 담고 가고 싶었다. 자연이 주는 신비스러움과 아름다움에 가슴이 벅찼다. 1700개가 넘는 계단을 걸어올라갈때 마주치는 많은 한국관광객들로 여기가 황산이 아니라 설악산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정도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500년된 예쁜소나무 한그루와 열쇠구멍이 30미터가 넘게 이어진 길이였다. 부부나 연인들이 여기에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버리고 가면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어 많이 찾는 데이트 코스 가장 많이 기념촬영을 하는 곳 이란다.



▲ 황산을 뒤로하여 선 벽룡사교도들.

즐겁고 행복한 황산등산을 오후2시에 끝내고 내려와 기다리던 점심식사후 약간의 쇼핑과 청나라시대 고문화거리(우리나라인사동)를 관광했다. 저녁식사후 내일 서호 유람선관광을 위해 항주로 향했다. 밤12시가 되어 항주숙소에 도착했다. 4박5일일정을 3박4일에 소화할러니 너무 바쁘고 힘이 들어 피로가 느껴졌지만 황산의 웅장함과 감동, 즐거움이 아직도 가슴에 꽂차있어 쉽게 잠이 오지 않는다.

### 5월18일 수요일 셋째날

셋째날 황산을 뒤로하고 항주 서호 유람선 관광을 갔다. 항주 시대는 고층건물들이 많았다. 길거리와 도로변에는 출근을 위하여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오토바이,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 10시 서호 도착후 유람선 선착장으로 갔다.

서호는 소동파가 3만명을 동원하여 땅을 파서 만든 인공호수라고 한다. 대륙인들의 기질을 엿볼수 있었다. 유람선으로 한바퀴 돌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서호물에 모든 근심, 걱정과 번뇌방상을 모두버리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 위에는 유람선을 비롯한 노젓는배, 통통배등 많은 배들이 세월의 시름을 잊은채 한가로이 노닐고 있었다.

주변숲은 울창하여 많은 관광객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었다. 수심은 2.5미터라고 한다. 한시간정도 유람선관광을 끝내고 상해를 향했다. 16시 상해 도착후 상해의 중심가인 중경로(서울명동)와 옛거리 쇼핑을 했다. 상해 고층건물을 보니 중국 제1도시의 위상을 보는듯했다.

저녁식사후 상해 야경을 보기 위해 황포강 유람선관광을 하였다. 상해의 야경은 휘황찬란했다. 정말 아름다움

의 극치였다. 우리일행은 부부가 3팀, 개인적으로 6명이 왔다. 항상 여행할때는 아내가 곁에 있었는데 이번은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오고 싶었던 황산인데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진의 우수 가사에 '뜻지못할 인연일랑 생각을 말자... 오히려 애를 쓰도 잊지 못할 그대 모습 그려볼때 밤비에 덧없이 흐느끼는 내마음...'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은 어쩔수 없나보다. 이런 아쉬움을 달래며 내일이면 고향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잠을 청했다.

이번 3박 4일간의 중국 황산산행과 여행을 하며 느낀점은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전거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상해의 발전한 변모를 보면서 서양문화와, 자본주의 문화를 받아들여 이제 미국과 함께 양대강국으로 서서히 부각되어가는 모습이 느껴졌다.

이번 여행으로 각자 느낀점들이 많았을 것이다. 입국 후 사원봉고 안에서 산행 후편을 하는 가운데 어느 각자님의 말씀 '내가 70평생을 잘못살았어' 하며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을 보면서 한집안의 가장으로써 아들로, 남편으로 자식위해 충실히 살아오신 인생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또 한분의 각자님은 공항까지 보살님 배웅하러 나오셨다. 물론 여행경비에 천그라스까지 사주셨다고 한다. '스승님! 요즘이 내생애 제일 행복해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사무애의 원용세상이고 이 감동의 순간이야말로 죽신성불한 세상이 아니겠는가. 두 분께 앞으로 더욱 행복함이 항상하시기를 기원해 본다.

이번 산행과 여행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혼자만이 아니라 여러사람들이 함께 어울렸을 때 더 아



▲ 교도들은 중국관불을 통해 견문을 넓혔다.

국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있는것 같다.

오후3시에 황산을 향해 출발하였다. 도심에서 벗어나자 우리나라 시골 같은 집들과 나무들이 평화스럽게 서있었다. 황산가는 길에 항주에 먼저 들려서 세계3대 송정가무쇼를 관람하기로 했다. 송정은 송나라의 민속춤으로 옛모습을 재현하여 보여주고 있었다. 주변은 큰 부처님상과 주변에 약사보살님, 보현보살님, 지장보살님을 모셔 놓고 있었다. 모두 참배드리고 토크쇼 부처님을 친견하였다. 우리나라 부처님과 사뭇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 중국특색

## 비슬산 대견봉에 우뚝 선 운천사 교도들



▲ 운천사 교도들이 도현정사와 지인행 전수와 함께 경복달성군에 위치한 비슬산에 정기 산행을 다녀왔다. 비슬산은 1000M 이상의 높이로서 6시간의 산행과 '추노'촬영지로 알려진 대견사도 구경하였다. 몸은 힘들어도 이 기운을 그대로 불공에 쏟아 넣는다고 한다.



동중 3학년 5반 황상운

밝은 햇살 뒤에는 어둠이 있고, 성공의 이전에는 실패가 있듯이 우리 사회의 밝은 면 뒤에는 남모르게 숨어있는 청렴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이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 알게 되지만 그렇게 심각한 줄 모르고 무심코 지나치기가 쉬워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해 가는 세계에 맞추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따라서 변화 하지 않으면 뒤쳐지고 만다. 그렇기에 당연히 지금은 하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려 하지 과거나 미래를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럴 시간도 많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이다. 또한 자

## 별들의 대답

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에 우리들의 사회는 더 청렴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부정부패가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청렴해질 수 있을까? 우리들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잘 행해 지지 않고 또 이미 우리들의 인식 속에 사소한 부정부패 정도는 눈감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비집고 들어와 많은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어서 우리들은 날로 청렴해지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나 역시 사회의 한부분인 동시에 우리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청렴하지 못했던 적이 많이 있다. 나는 우리학교에서 우리 반의 부반장을 맡고 또한 학급회의의 의원인 학교의 간부학생으로서 학교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나도 학기 초 반장선거를 하기 위해 준비할 때 투표권을 가진 우리 반 친구들이 다른 후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자, 나는 지금까지 학교생활을 하면서 보았듯이 반장

이 되기 위해서 "내가 당선된다면 우리 학급에 햄버거를 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또한 학급의 공식적인 선거유세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선거 연설문을 준비해 왔지만 다른 아이들 모두가 한 문장의 말로만 하고 들어가지 내가 괜히 선거유세문을 길게 준비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아이들 따라

### 청렴의 방법은 자신이 먼저 당당하게

#### 바른길을 견도록 노력하는 것

서 그냥 한 문장만 말하고 들어왔다. 위에서 말한 청렴은 청렴하지 못한 나 자신을 되돌아 볼 때가 언제인가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난 내용이였다. 이렇게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사회에서의 청렴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먼저 당당하게 남들과는 다르더라도 바른길을 견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청렴해 질수 있는 방법이라

면 방법일 것이다. 내가 읽은 책에 이런 말이 있었다. "사람들은 길을 가면서 그 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평하고 화낸다. 하지만 자기가 가도 있는 그 불평내고 화내는 길도 똑같은 길이이다." 라고 말이다. 별들은 자신들이 어느 밤하늘에 있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밝기로 빛날지 모른다. 하지만 그 별은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밤하늘을 빛내기 위해 노력한다. 역시 우리나라의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공직자들과 여러 정치인들도 별들처럼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

고 한다. 우리를 역시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의 청렴에 관하여 생각하고 따지기 이전에 우리들부터 과연 청렴한지 되돌아보고 반성한 다음에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또한 청렴의 개념을 너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기 보다는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오도록 우리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어두운 밤하늘을 무심코 쳐다보았다. 그 감감한 하늘에서는 언뜻 보면 무심코 지나칠지도 모르지만 남모르게 우리의 밤하늘을 밝혀 주고 있는 별들이 있었다. 별은 유일하게 태양계에서 우리 지구에서만 볼 수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더 빛나기 위해 그리고 더 오랫동안 빛을 내기 위해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이런 별처럼 우리 주변에도 묵묵히 청렴한 모습으로 자신을 빛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

별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과연 청렴한지, 만약 아니라면 과연 청렴해 질지... 그 답은 아마 별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곳곳에 많이 있게 된다면 아마 "Yes." 라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날은 분명히 올 것이다.

풍경소리

걱정



걱정하지 마십시오. 울 것이 온 것이며 갈 것이 간 것입니다. 행한 대로 받으며 마음가짐만큼 받습니다. 누구나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생각한 수준만큼 행동하며 그만큼의 결과가 생깁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셨습니까? 걱정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묘원 (한국위빠사나선원장)

한 톨의 씨앗



수행자가 평소 선한 일을 하는 여인을 칭찬하며 말했다.

“하나를 베풀면 백이 생기며, 마침내는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여인이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보잘 것 없는 일에 어찌 그런 복을 받겠습니까? 칭찬이 지나치십니다.”  
 수행자가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마당에 있는 500년 묵은 은행나무를 보셨습니까?”  
 “예. 그 은행나무에서는 해마다 수백 섬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럼, 수백 섬의 열매를 따기 위해 씨앗을 한 가마쯤 심었겠군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씨앗 한 톨을 심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 말이 지나치다고 하십니까?”

이용범 (소설가)

달 하나, 배 세 척



휘영청 달 밝은 밤 가을 호수에 작은 배 세 척이 떠 있습니다. 누는 멈춰선 배에 비스듬히 앉아 낚시하며 달을 쳐다봅니다. 금은 배를 저어 동쪽으로, 차은 남쪽으로 노 저어 가면서 달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누에게는 달이 멈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은 자신을 따라 동쪽으로 움직이는 달을 보며, 차은 남쪽으로 이동하는 달을 봅니다. 달은 분명 하나인데 말입니다.

박경준 / 동국대 교수



이달의 사진

연꽃 피어 오르리

깨끗도 더러움도 가까이 아니하고 자신의 본래마음 그대로 지켜주네



한국불교사진협회 경남지부 김인규 지부장 사진 제공

조상영식과 선망부모의 왕생성불을 서원합니다



영식천도 영험도량 “불교 총지종 수인사”  
 조상과 선망부모의 영위(靈位)를 수인사에 모십시오!

자손들의 재난소멸과 일체 서원성취를 위하여 생전(生前)에 본인의 명패를 득락전에 미리 봉안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고통의 사바세계를 떠나 즐거움이 가득찬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전당이 득락전입니다. 득락전에 조상·선망부모의 영위를 모시고 왕생성불을 발원하는 천도재 및 기제 불공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불교총지종 수인사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0-1 (전화:054-247-7613, FAX: 054-247-7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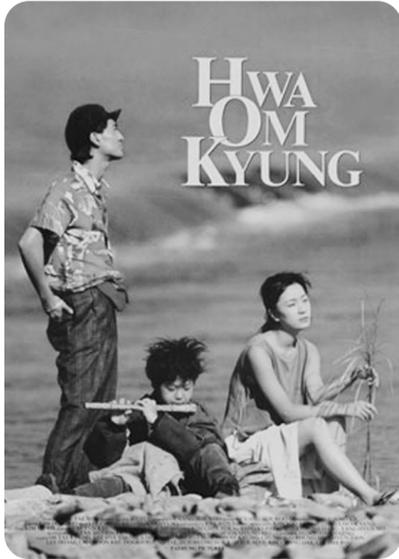
주교 지 공 정사·지회심 전수 합장





영화에서 불교보기 ⑩ / 장선우 감독의 <화엄경>

“세상 전부가 어머니구나!”



러다 그 문수머저 죽자 선재는 자신을 갇힌 듯 모포 한 장을 갖고 길을 떠납니다. 떠남의 목적은 '어머니를 찾아서'입니다. 그런데 단서라고는 담요 한 장밖에 없는데 이 넓은 세상에서 어떻게 어머니를 찾겠다는 것인지. 모래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 큼이나 무모해보입니다.

데 그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는 지혜라는 수단이 필요하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 선지식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운의 생각은 대승 불교의 핵심사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야심경>에도 나오지만, '반야'라는 지혜를 통해 피안의 세계인 '바라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 '어머니'라는 상징으로 표현된 피안의 세계를 얻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재에게서 '어머니'라는 상징은 선 불교적 표현을 빌리면서 '불성'입니다.



내가 다니는 절에는 수다쟁이가 두 사람 있습니다. 이들 수다쟁이는 서로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로를 싫어하는 이유가, 상대가 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이 많아서 싫다고, 침을 튀기며 홍보는 걸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른 수다쟁이를 욕하는 또 다른 수다쟁이는 자기는 수다쟁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자신도 말이 많으면서 말 많은 사람을 싫어하는구나, 입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고 괴롭다면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지만 사실 상대의 끔찍한 모습은 내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상대는 삶은 모습을 보여줘서 내게서 나쁜 습관을 고쳐주기 위한 불보살의 화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선우 감독의 <화엄경>은 어린 소년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에서 선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어느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 없었습니다. 여자만 밝히며 길을 거리는 장군도, 술독에 파묻혀 세월을 죽이는 별박사도 모두 그에게는 스승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선재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머니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소년을 키워주고 가꾸어주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절에서 만났던 수다스런 보살도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었으니까요. 이렇게 세상에는 스승 아닌 게 없습니다.

본격적인 구도영화를 표방한 장선우 감독의 <화엄경>은 고은의 소설 <화엄경>을 원작으로 했습니다. 한편 고은의 <화엄경>은 <대방광불화엄경> <입법계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은의 <화엄경>이 53선지식을 찾아가는 선재동자의 여정을 따라갔다 면 장선우의 <화엄경>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현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군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어린 소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 선재는 어린 시절 자신의 이름이 박힌 노란 담요에 싸여 버려진 소년입니다. 한때는 전과자였으나 선재를 만나면서 남부주의로 살아가는 문수에 의해 길러집니다. 그

때로는 '고향'이라고 표현하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선불교에서는 참선을 하고, 아미타신앙을 추구하는 이들은 염불에 일념정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재는 세상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즉 현실과 격리된 세계에서 홀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속에서 깨달음을 구합니다.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배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식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인 선지식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어린 아이에게

모든사람을 선지식으로 대하고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배워 지혜를 기를 때 불성(佛性)으로 다가가



만난 법운을 보고 선재는 고개를 돌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 비친 법운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승려이면서 술과 고기를 맛있게 먹는 법운의 모습이 어린 선재에게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재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법운은 자신이 먹은 술과 밥을 선재에게 지불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리를 그 댓가로 주었습니다. 불지 못하는 거라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말하고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절경해보였던 법운이 선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미리 나쁜 사람이라고 짐작하고 고개를 돌렸던 그 법운이 사실은 선재의 가장 큰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맹초로 보였던 법운은 어린 선재에게 문수와는 다른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재의 원래 목적은 어머니인

법운을 내게 하는 법운을 시작으로 목숨의 의사 해운, 장기수 해경, 그리고 장부수 이나와 별을 관찰하는 소년 김박사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장군 지오나 이련이라는 여인, 자비심이 넘치는 등대지기가 있습니다.

선재는 이들에게서 사람이 바다보다 우주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배우고, 평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소년 김 박사에게서는, 한 번 태어난 것은 언젠가 소멸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선재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법운의 가르침대로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지혜를 쌓았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어머니를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 관문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선재와 어머니의 만남은 영화의 절정이자 선재가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는 특별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긴 여행에 지친 선재는 어느 곳에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잠에 빠집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라고 여겨지는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연꽃을 들고 있습니다. 매우 성스러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선재를 낳아준 물리적 어머니라기 보다는, 정신적인 어머니, 즉 신의 영역을 느끼게 하는 어머니입니다. 선재는 마침내 그 어머니의 품에서 잠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나는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어 언제나 네 옆에 있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항상 그의 옆에 있었고, 선재가 긴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장군 지오, 법운 스님, 장남가수 이나, 평등을 가르쳤던 감독의 해경, 바닷가 무료봉사 의사 해운, 그리고 선재의 아이를 낳았던 이런 이라는 여인 등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짧은 대화를 통해 선재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이전의 선재와 작별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만큼 어머니와의 만남은 특별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선재의 깨달음은 이렇습니다. 선재가 노란 담요를 들고 열심히 찾아 헤매던 '어머니'라는 존재는 결국 자기 불성입니다. 그런데 그 불성이 바깥세계, 세상 속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 모든 모습이

결국 나와 뗄 수 없는 나의 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문수의 가르침처럼 나쁜 이를 만나 고개를 돌려버린다면 결코 내 불성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운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선지식으로 대하고,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배워 지혜를 기를 때 우리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선우 감독의 <화엄경>은 꽤 난해한 영화였습니다. 솔직히 원작인 고은의 <화엄경> 또한 읽다가 포기해버렸을 정도로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뿌리인 <화엄경> <입법계품>은 읽을 엄두를 못냈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보면서 경전 <화엄경>에 도전해 보고픈 욕구를 느꼈습니다. 영화도 이토록 많은 가르침을 주는데 경전은 얼마나 많은 보물을 담고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 자유기고가 김은주 -

불기2555년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의 '연희단 공연' 참가기

김 하 정 <총지사 교도>

해마다 열리고 있는 연등축제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연등축제가 그전에는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려 오게 되었는데 연등행진을 하는 일정이었으나 몇 년 전부터는 동대문운동장 대신 동국대학교로 자리를 옮겨서 열리고 있다.

이 연등축제에 총지정은 해마다 연희단을 꾸려서 참가해왔다. 올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기 위하여 연희단 식구도 더 늘렸다고 한다. 그래서 나도 성화(?)에 못 이겨 연희단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나는 많이 참석하지 못했다. 다행히 단장 보살님과 무용담당 보살님의 출중한 지도 아래 연습에 한번만 참석하고도 쉽게 익힐 수 있었다. 다행이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후회와 걱정이 되기도 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참여하게 된 것도 그렇거니와 처음 참석하는 일이라서 더욱 내키지 않았다. 그리고 연등축제가 있는 날은 토요일이라 친구들과

나면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공연을 마치는 즉시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온데 간데 없어졌고 조계사까지 연등행진을 하리라 마음을 바꿔 먹었다. 가만히 있어도 흥겨웠다. 연습 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이 절로 묻어났다.

동참해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감흥이었다. 행사에 참석한 것이 마냥 즐겁고 재밌었다. 축제의 한마당에 구경꾼이 아니라 행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 가슴 벅찬 것이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리듬을 타며 어깨를 들썩이고 몸을 흔들며 대는 보살님들을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신이 나고 입가에 웃음이 묻어났다. 모두가 흥에 겨웠다.

참 즐거워하는 모습이였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행사를 준비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축제를 즐기는 모습에서 오히려 젊은 내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욱 큰 것을 배울 수가 있었다.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좋은 경험이었다. 내년에는 주위의 친구들을 모두 부를 생각이다.

아쉬움이 있었다면, '왜 불교행사에는 어린 사람들은 별로 없고 나이 드신 분들만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나

연등축제는 경험해야 할 문화유산이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야

싶은 마음은 점점 더 사라졌다. 빠져 나갈 궁리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행사에 임박해서 못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었고 날씨는 다가오고 이리저리도 저리저리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행사장으로 향하게 되었다.

행사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속으로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다. 연희단에는 대학생이 나 혼자 뿐이었기에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희단 공연이 끝나면 연등행진에는 참석하지 말고 집으로 바로 가야지' 하고 마음먹었다. 빨리 끝내고 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행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나는 벌써부터 빠져 궁리를 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 동국대학교 운동장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무용 연습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모여들었다. 사실 연등축제를 준비하면서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행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 신기해보였고 조금씩 흥이 나기 시작했다.

여러 그룹의 연희단을 보면서 은근히 경쟁심도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함께 어울려 행사를 즐긴다는 것이 신이 났고 가슴 뿌듯했다. 형형색색의 의상들이 군무(群舞)를 이루고 수많은 연등들이 운동장을 수놓았다. 한바탕 축제의 장이 마련되었다. 나도 모르게 흥이 나서 연등축제에 푹 빠지게 되었다.

마지막해 참석했던 나는 시간이 지

자신도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젊은 사람들의 동참이 적은 것에 대해서 불교인들 모두가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사실 이번엔 내 친구들에게 '연등축제가 같이 가자'고 권유를 했었다. 그런데 되돌아온 대답은 '우리가 왜 거기 가? 거기는 나이 든 아줌마나 할머니들이 가는 곳 아니? 우리가 거기 가서 할게 뭐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권하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의 말처럼 딱히 가서 할 게 없다는 생각에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막상 참여를 해보니 젊은 사람일수록 한번 정도는 이런 곳에 와 봐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최신 음악과 유행에만 길들여져 있는 현대의 젊은이들이 경험해야 할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어디 가서 경험할 수 있으며, 언제 종로 대로를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겠는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불교계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함께 합심해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연등축제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나. 더구나 연등축제를 무형문화재로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더욱더 청소년 포교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이기 때문이다. 불교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 연등축제는 후세에 물려줄 소중한 우리문화 무형문화재이다(동국대에서 총지정 연희단이 불교도에게 춤을 보여 주고 있다)